

##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 경북사대부중 최선경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교과서 속 이야기, TED 영상으로 보며 흥미 UP



영어 영상을 보는 경북사대부중 학생들. 경북사대부중 제공

“While William was reading the book, he thought he could help his village by building a windmill(윌리엄은 책을 읽으면서 풍차를 만들어 마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중3 영어 교과서 1단원 ‘Catch Your Dreams’에 나오는 본문 ‘The boy who caught the wind’의 일부다. 교과서에 적힌 본문을 읽고 본문 내용에 포함된 문법을 배운 뒤 한 문장씩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 수업이지만, 평소 영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교과서 속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나 직접 말로 설명하는 영상을 본다면 어떨까?

최선경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경북사대부중) 영어 교사는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국적의 William Kamkwamba(윌리엄 캄캄바)가 출연한 TED 인터뷰 영상을 수업시간

에 보여줬다. TED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

윌리엄 캄캄바는 TED에서 “I got information about making the mill. And I tried, and made it(책에서 풍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나는 노력했고, 그래서 해냈다)”이라고 말했다. 최 교사는 교과서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TED 영상을 수업시간에 활용해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높였다. 교과서와 같은 내용일지라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한 것. 최 교사에게 TED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 빈칸 채우며 듣기 실력 쑥

영상을 보기에 앞서 교과서 본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19세 윌리엄 캄캄바가 살아온 환경과 극복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본문 ‘The boy who caught the wind’을 함께 읽고,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와 문법, 문장구조, 해석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교과서 본문 학습을 하지 않은 채 영상을 먼저 보게 되면 학생들이 영상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단순히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문 전체 내용을 다룬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캄캄바가 출연한 TED 영상인 ‘William Kamkwamba: How I built a windmill’을 보여준다. 영상을 볼 때는 기억에 남는 단어를 메모지에 적어보도록 지도한다. 앞서 교과서 본문을 공부하며 관련 어휘와 배경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영상 속 단어를 더욱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체 영상의 내용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최 교사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매우 신기해하며 수업에 흥미를 갖는다”면서 “영상을 통해 교과서 속 인물을 친근하게 느끼면서 본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을 한번 본 뒤에 교사는 중요한 어휘나 구문에 빈칸을 친 스크립트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단순히 영상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듣기 실력까지 키우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빈칸을 채워나가며 핵심 표현과 외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어휘를 익힐 수 있다.

최 교사는 “빈칸 채우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 영어자막이 포함된 영상, 자막이 없는 영상 순서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다”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문화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TED 영상 보며 교훈 얻는다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길러주는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TED 영상의 경우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기부여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윌리엄 캄캄바의 경우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퇴했지만 스스로 책을 읽고 독학하며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부품들로 풍차를 만들었고, 마침내 자신의 마을에 전기를 보급하는데 성공했다. TED에서 윌리엄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나는 노력했고, 그래서 해냈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들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면 결국 해낼 수 있구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최 교사는 “윌리엄 캄캄바는 학생들과 같은 10대인데다가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것을 달성한 인물인 만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TED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진로와 학습 측면에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영상이 많으므로 이를 수업 내용과 연관시켜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l21@donga.com](mailto:songil21@donga.com)

##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 Q.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과 유의할 점은?

‘윌리엄 캄캄바’의 사례처럼 교과서 속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영상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과서 단원의 주제와 딱 맞는 내용의 영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찾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다소 어려웠다.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영상만 보는 수업’으로 여기기 쉽다.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는 것이 단순한 흥미 유발에 그치지 않도록 빈칸 채우기나 단어 찾기 등 약간의 과제를 부여하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영상의 주제가 교과서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며 학생들에게 영상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한다.

### Q. 수업의 효과는?

단순히 교과서 본문을 읽고 문법이나 어휘를 알려주는 식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수업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상 활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수업을 진행한 뒤 앞서 배운 수업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활동을 하는 식이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며 학생들은 듣기 실력과 어휘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고, 영상 속 외국인이 드러내는 문화도 익힐 수 있다. 또한 영상 속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보며 영어로 된 영상 자체에 흥미를 느껴 자발적으로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TED 영상을 본 학생들 중 일부는 TED사이트에 들어가 다른 영상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영상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다.

### Q. 영어 수업에서 TED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TED 영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TED Talks를 생각한다. 물론 TED Talks 영상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약 학생들이 영어로 된 영상을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TED-ed([ed.ted.com](http://ed.ted.com))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Ted talks는 영상이 다소 길고 학술적인 반면, TED-ed의 영상은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것이 많아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경 경북사대부중 영어 교사